

보도일시 | 2026년 3월 1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살랑이는 봄날’, 시민 걸으로 다가가는 문화예술 사업 지역예술인 39팀 최종 선정, 2026년 거리음악회 본격 추진

(재)고래문화재단 공고 제2026-17호

### 2026년 고래문화재단 「남구 거리음악회」 상반기 지역예술인 공모 최종결과 공고

(재)고래문화재단에서는 2026년 상반기 「남구 거리음악회」와 함께 할 지역예술인 최종 선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고래문화재단 이사장

#### 1. 최종 심의 결과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최종심의 선정 (팀 명 / 장르)					
지역 예술인	팀	1	윙윙아트 울돌리 (퓨전 국악)	2	무제연의 날개짓 (현악 피아노)	3	윙티미이교육연구소 (가족 뮤지컬)
		4	Ark Ensemble (신앙음악)	5	민씨안산무용 (무용)	6	관음리 (퓨전국악뉴에이지)
		7	유피스 (퓨전재즈)	8	무궁 트러스 (브라스 밴드)	9	하늘 (국악)
		10	노루 (전통음악)	11	국악연주단 민들레 (국악)	12	여우음악상복 (클래식 성악)
		13	리브 수프림 (재즈밴드)	14	SO엔터테인먼트 (스트릿댄스-힙합)	15	키이극두 (스트릿댄스-브레이크)
		16	옛날오카리나 앙상블 (오카리나)	17	예술다하기예술 (클라운 서커스)	18	엔더독 사운드 (힙합음악)
		19	파랑별 (대중음악)	20	아라강장동 (인형, 풍류의 앙상블)	21	송황민 (팝/에어울린)
		22	이아기공작소엔 (가족극)	23	불꽃놀이앙상블 (대중음악)	24	파레소 (전통음악)
		25	풍류365 (전통음악)	26	태화강예술단 (노래 및 합창)	27	예술장작소 노이 (성악중창)
		28	무제연의상복 (클래식)	29	꽃빛합창단 (합창)	30	본태극두 (스트릿댄스-힙합)
		31	울산국악실내악단 소리쟁이 (국악, 기악)	32	제노비아 댄스 (K-팝, 퍼포먼스)	33	음악예술단사노라민 (8인조밴드)
		34	아우라 (스트릿댄스-힙합)	35	무용단 춤관 (한국무용)	36	포시극두 (스트릿댄스-브레이크)
		37	나모나 (퓨전국악)	38	김미경관소리연구소 (국악)	39	엑스무제연의상복 (미용)

\* 최종 선정팀 개별 문자 예정

\* 선정자 대상 일정 조율은 실무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주최 | 울산광역시 남구 주관 | (재)고래문화재단 문의 | 052-226-1996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상반기 지역예술인 공모 최종결과 공고문

▲ 2026년 3월 14일 거리음악회 공연 중 가족뮤지컬 포스터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2026년 상반기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팀을 선정하고, 3월 9일 그 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0팀이 지원해 지역 예술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1차 서류심사의 및 2차 영상심사를 거쳐 최종 39팀이 확정됐다. 공모는 예술성, 발전 가능성, 시민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예술인들은 2026년 거리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2026년 거리음악회」는 오는 3월 14일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첫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3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3월 14일은 18:00 부터 19:30까지, 3월 21일과 28일은 18:30부터 19:30까지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종료 후에는 장생포라이트 관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4일 첫 공연에는 지역예술인 2개 팀과 함께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선보인다.**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거리음악회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3월 21일과 28일에도 지역예술인의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음악을 넘어 퍼포먼스·뮤지컬 등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는 단순한 거리 공연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역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남구를 대표하는 거리공연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고래문화재단 이사장(서동욱 남구청장)은 “거리음악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열린 문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고래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9.

---